



즉시 배포용: 2022년 10월 1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의사 인력을 다양화하기 위해 240만 달러 이상 지원 계획 발표

뉴욕주, 뉴욕 연합 의과대학이 관리하는 다양성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를 두 배로 늘리고 8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서비스 제공

뉴욕의 모든 의대생 중 약 20%, 흑인, 히스패닉, 라틴계, 태평양 섬 주민,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의과대학(Associated Medical Schools of New York)이 관리하는 다양성 프로그램에 투자금을 두 배 이상 늘려(240만 달러 이상 투자) 전통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을 의사 인력으로 투입하도록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보건부를 통해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이 프로그램은 흑인, 히스패닉/라틴계, 태평양 섬 주민 또는 원주민을 포함하여 전통적으로 의학계에서 소외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뉴욕에 있는 의대에 입학하여 졸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뉴욕의 유색인종 커뮤니티는 의료에 대한 접근에서 불균형적인 처우를 받았고 의료 분야에서 그들의 과소 대표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기인한 더 나쁜 건강 결과를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는 의학의 다양성을 옹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두 배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주의 의료 인력이 주 전체 인구를 더 대표하고 역사적인 잘못을 바로잡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주 인구의 30% 이상이 흑인 또는 히스패닉인 반면, 의사들 중 12%만이 이러한 인구 통계를 대표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배경을 가진 의사를 만나는 환자가 더 나은 건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뉴욕 사람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의 의사 인력을 다양화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듭니다.

뉴욕주는 현재 의료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의료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24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에 지원했던 기금의 두 배가 되는 수치입니다. 이 기금은 SUNY Downstate Health Sciences University에서 AMSNY의 성공적인 학사 후 프로그램인 브릿즈 투 메디슨(Bridge to Medicine)을 포함한 신규 및 기존 다양성 이니셔티브를 통해 8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오늘 **SUNY Downstate**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약속의 중요성과 이러한 프로그램이 주 전체의 의과대학에서 다양성을 구축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처음으로, 뉴욕의 모든 의대생들의 약 **20%**가 흑인과 히스패닉/라틴계, 태평양 섬 주민과 아메리카 원주민 배경을 포함하여, 전통적으로 대표성이 낮은 인구 출신입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Mary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 형평성 향상을 지향하는 우리의 목표에는 그들이 봉사하는 뉴욕 시민들만큼 의료 직업이 다양하도록 보장하는 작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경험에서 고유한 측면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사람의 이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이를 실현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건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을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몇 년 동안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7년에 시작된 의과대학은 전통적으로 소외된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의 의과대학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1년 간의 대학 졸업 후 연구 분야입니다. 2020년 생리학 석사과정으로 인정받아 의과대학 1학년생으로 남녀공학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21년 사이에 브릿지 투 메디슨(Bridges to Medicine)에 등록한 57명의 의대생들 중 88%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첫 번째 코호트에서 온 6명의 학생은 **SUNY Downstate** 거주지와 일치했습니다.

브릿지 투 메디슨(Bridges to Medicine) 외에도, 주정부의 투자는 소외된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의학에 입문하는 데 관심이 있는 흑인 남성 운동선수들을 격려하는 프로그램, MCAT 준비 프로그램, 연구와 의사 그림자 기회, 학생과 교수 멘토들을 연결하는 웹 기반 프로그램, 그리고 의대 학생들이 주거, 영양 자원 및 재테크 능력 등 기타 생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 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기금은 또한 **AMSNY**의 기존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Jacobs School of Medicine and Biomedical Sciences, University at Buffalo, SUNY](#) New York Medical College; Renaissance School of Medicine at Stony Brook University; Norton College of Medicine at Upstate Medical University에서 진행하는 [학사 후](#) 프로그램;

- 뉴욕 시립 대학의 [의학 및 연구 프로그램에서의 커리어를 위한 경로](#).
- CUNY 의과대학의 [학습 자원 센터](#).

뉴욕주 17개 공립 및 사립 의과대학 컨소시엄인 뉴욕 연합 의과대학(Associated Medical Schools of New York, AMSNY)은 1985년에 첫 번째 다양성 파이프라인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대표성이 낮은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주 보건부는 뉴욕에서 의료계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인구 통계를 넓히는 것을 기지원하 위한 노력으로 2002년부터 이러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Associated Medical Schools of New York 총장 겸 최고경영자인 **Jo Wiederhor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보건부의 약속은 뉴욕주의 의사 파이프라인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를 의미하며 의료 인력의 다양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35년 이상 동안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제 우리는 그 영향을 실제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AMSNY의 네 가지 학사 후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94% 이상이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그 중 약 절반은 주로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있는 1차 진료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Downstate 총장인 **Wayne J. Riley**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과대학 1학년으로 전환하는 우리 학생들의 능력에 대한 브릿지 투 메디슨(Bridges to Medicine) 프로그램이 끼친 영향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환자들이 다양하고 독특한 배경의 반응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브릿지 투 메디슨(Bridges to Medicine) 석사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지역사회에 훨씬 더 큰 이익이 됩니다."

Jamaal T. Bail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학에서의 다양성과 대표성은 지속적인 인종 건강 격차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가 유색인종 의대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질 좋고 문화적으로 유능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브릿지 투 메디슨(Bridges to Medicine) 같은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요구를 이해하는 믿을 수 있는 의사들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의료 분야의 다양성을 높이고, 유색인종 공동체를 위한 의료 분야의 직업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차세대 의료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한 **Kathy Hochul** 주지사, **Mary Bassett** 위원, 뉴욕주 보건부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Brian Cunningham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전 있는 리더십과 의료 다양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뉴욕주 보건부와 AMSNY에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여기 SUNY Downstate의 43구역에 있는 집에 재능 있는 의대생과 실무자들이 많이 있어서 행운입니다. 우리는 이 자금을 통해, 브루클린과 같은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BIPOC

학생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의대 학생들이 그렇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저와 제 유권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amela J. Hunt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 주 예산에 대한 의료 다양성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위한 의회의 주요 지지자가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다양성이 증가하면 지역사회에 직접 투자하는 의료 분야의 새로운 실무자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건강 결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확대와 의대생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환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